



U-17 축구대표팀 김진영 골키퍼가 6일 새벽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U-17축구월드컵 16강전 한국-멕시코전 승부차기에서 첫번째 키커 캄포스의 슈트를 막아내고 있다. (SBS TV 촬영)

후반 47분 드라마 같은 동점골

U-17 월드컵호, 22년만에 8강 '쾌거'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홍명보호'가 8강에 오른 데 이어 아우들이 17세 이하(U-17) 대표팀까지 세계 4강 문턱을 노크하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6일 오전(한국시간) 나이지리아 바우치에서 열린 2009 FIFA U-17 월드컵 16강에서 멕시코와 연장까지 1-1로 비기고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이겨 8강에 올랐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8강에 오른 것은 1987년 캐나다 대회 이후 22년 만이다. 당시는 16개국(현재 24개국)이 참가해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바로 8강 토너먼트다. 사실상 올해 대회에서 이미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셈이다.

만 후반 6분 미드필드 정면에서 김진수가 왼발로 감아 찬 프리킥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등 골게 닫힌 멕시코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한국의 공세가 이어지자 멕시코는 후반 16분 마드리갈을 빼고 수비수 디에고 레예스를 내보내 벽을 더 두껍게 쌓았다.

계속 멕시코 골문을 두드려던 한국은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시간 김동진의 극적인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윤일록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골라인 근처까지 파고들어 중앙으로 내준 공을 김동진이 왼

발 안쪽으로 정확하게 차 골망을 흔들었다. 이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한 순간이었다.

양팀은 연장전에서도 광망을 멈추지 않았지만,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해 결국 승부차기까지 치러야 했다.

먼저 키를 한 한국은 이강을 시작으로 안진범(부경고), 김진수, 이종호, 이민수(문성고)까지 다섯 명의 키커가 모두 골문을 열었다. 반면 멕시코 첫 번째 키커 카를로스 캄포스의 슈팅이 195cm의 장신 골키퍼 김진영에게 걸려 결국 치열했던 승부는 한국의 짜릿한 승리로 끝이 났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지동원 우선 지명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선수권대회 예선에서 헤트트릭을 터트린 스트라이커 지동원(18·광양제철고)을 전남 드래곤즈가 우선 지명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6일 발표한 24명의 2010 K-리그 신인 우선 지명선수 공시에 따르면 전남은 지동원을 비롯해 U-18 대표팀에 소속된 황동연, 김영욱(이상 광양제철

고)을 선택했다. 광양제철고팀은 전남이 운영하는 유소년 클럽이다.

K-리그 산하 클럽 시스템 출신 선수는 드래프트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클럽에 우선 지명될 수 있다. 우선 지명된 선수가 대학 진학을 위해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해당팀은 2년간 우선 지명 효력을 갖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내년엔 1군서”... 신인·2군 선수들 구슬땀

KIA 남해서 마무리 훈련

호랑이들의 포효로 남해가 뜨겁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은 우승의 여운이 가라앉기도 전인 지난 1일 남해에 마무리 캠프를 차렸다. 4일훈련 하루휴식 일정으로 마무리 캠프를 하고 있는 KIA는 5일 달콤한 휴식을 취한 뒤 6일 오전 7시30분 산책을 시작으로 훈련을 재개했다.

남해에는 반짝 추위가 지나간 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훈련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형성됐다. 12년만의 우승으로 선수단 사기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내년 1군 진입을 목표로 하는 2군 선수들과 신인선수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됐다. 14일 한일캘리포니아시리즈를 앞두고 있는 1군 선수단은 한일전 필승을 위해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선수단을 대표해 우승 인사를 다녔던 김상현과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주장 김상훈까지 캠프에 합류하면서 훈련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7일 오후 1시에는 경기감각 조율을 위한 LG 트윈스와의 연습경기도 예정됐다. 연습경기에는 한일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양현종이 선발로 나서 구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범현 감독의 내년 시즌 구상도 시작됐다. 조범현 감독은 남해 캠프 1차 멤버에 신인급 선수들을 대거 포진 시켜 내년 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선수단 공식일과는 저녁 식사이후 진행되는 웨이트를 끝으로 마감된다. 하지만 신인급 선수들에게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훈련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소화해야 할 스케줄이 있다.

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우승축하행사때 신인급 선수들은 춤과 노래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성철·안치홍·정용운 등 2009 신인 3인방은 이번 행사에서 선보일 공연을 위해 안무까지 짜는 등 열 틈없는 남해캠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마무리 캠프 중인 KIA 타이거즈 투수들이 6일 오후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

선수단은 8일 오전 훈련을 마친 뒤 광주로 이동해 9일 우승축하행사에 참여한다. 1군 선수단은 10·11일 무등경기장에서 훈련을 한 뒤 12일 일본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선수단과 2차 캠프진은 남해로 이동해 마무리 훈련을 계속한다. /남해=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회칙

- ▲김민태(전 동아여중 교장)·남순자씨 장남 범진(승원 모터스 대표)군 임종보·박연옥씨 장녀 송이양=7일(토) 낮 12시에 불문선 웨딩홀 3층.
- ▲함정자씨 아들 한치민군 선정식(반도여행사 대표)·장복희씨 딸 헤림양=7일(토)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4층.
- ▲김대용(전 광주고교 겸 이사장)·안숙씨 장남 강민군 박홍철·김명희씨 차녀희선양=7일(토) 오후 5시 서울 말말학교 2층 도산홀.
- ▲정종일(전 전남여고 교사)씨 차남 우철(곡성군청)군 신정철씨 차녀 미지(곡성군청)양=7일(토) 오전 11시20분 양동

금호생명 3층(노블레스홀)

- ▲김현백·허순씨 차남 상배군 이옥주(남구 총무과장)·정원례씨 장녀 지현양=7일(토) 낮 12시30분 프라도호텔 2층(다이아몬드홀)
- ▲이범수·손점숙씨 장남 승준(남도일보 사자문 차장)군 송기원·박외순씨 장녀 난희양=7일(토) 낮 12시 웨딩의전당 금호 3층 아시아나홀.
- ▲김정옥(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회장)·이일순씨 장남 성환군 박인규·최순숙씨 차녀 영은양=8일(일) 낮 12시30분 광주신양파크호텔 1층(그랜드볼룸)
- ▲니승수·이창엽씨 장남 상현(대원산업 대표)군 김양길(전 한국농어촌공사)·최향옥씨 차녀 경선양=8일(일)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 ▲권영순씨 차남 방성진(봉선동 자연성군청)양=7일(토) 오전 11시20분 양동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양=8일(일) 낮 12시40분 웨딩의전당 금호 3층 아도니스홀.

무음

- ▲김갑수(전 광주일보 교열부 차장)씨 별세 용환·영랑·현옥·유정씨 부친상=발인 7일(토) 쌍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380-3042.
- ▲강중원씨 별세 동수·상희씨 부친상=발인 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 ▲박종규씨 별세 광동·광용(기아자동차 과장)·순덕·점자·옥순(로케트 전기)·미정씨 부친상=발인 7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 ▲박승자씨 별세 김재학·재진·승임씨 모친상=발인 7일(토) 화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대한민국 종합뉴스: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02-7779-8000

RADIO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가톨릭방송

CBS

080-800-1031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www.cbsnews.com